

종단소식

조계종

동화사 민족통일 기원

민족통일과 대구시민을 위한 기원대법회를 봉행했다.



대구 동화사(주지 무공)는 4월28일 프린스호텔에서 민족통일과 대구시민을 위한 기원대법회를 봉행했다.

불국사 후불탱화 봉안

경주 불국사(주지 설조)는 4월26일 무설전에서 후불지장탱화 봉안식을 봉행했다.

마곡사 어린이집 개원

공주 마곡사(주지 철웅)는 4월21일 불미 어린이집을 개원했다.

태고종

교구 총무원장·주지 회의

총무원(총무원장 인국)은 4월21일 서울 총무처 회의실에서 서울·경기 각 교구 총무원장 및 주지사 회의를 열고, 전국 사찰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선암사 참배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동환스님 총무원장 취임

계11대 광주·전남총무원장 동환스님 취임법회가 9일 오전 11시 광주 운천사에서 봉행된다.

천태종

중랑구사암 국태민안 기원

중랑구 사암연합회(회장 경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 란입니다.

천)는 4월24일 구경 대강당에서 국태민안 기원대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경천 삼승사 주지를 비롯 이문재 중앙구청장, 이상수 국회의원, 김정남 망우동 천주교 주임신부 등 5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동화사 법당 낙성식

강원도 고성군 동화사(주지 개문)는 14일 오전 11시 법당 낙성식을 갖는다.

그 동안 일반주택에서 법회를 운영해 오던 동화사는 96년 7월30일 공사를 시작해 2년여 만에 1백50여평의 슬라브 단층법당을 완공했다.

개문스님은 "마음 편하게 기도할 도량이 없어 전전하면서 도 말없이 따라와 준 3백여명의 불자들에게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진각종

심인당 4곳 주교 발령

통리원(통리원장 성초)은 4월28일 총인원에서 인사위원회를 열고, 제주도 울릉도 군산 대구교구 등 4곳에 대한 심인당 주교 신규발령을 단행했다.

제주교구 식재심인당에는 원암정사, 울릉교구 총지심인당에는 상명정사, 군산교구 보덕심인당에는 효원정사 대구교구 상암심인당에는 묘행성전수가 각각 신규발령됐다.

중앙서장 취임 축하법회

진각종(통리원장 성초)은 28일 대강당에서 부처님오신날 기념 및 배성수 중앙서장 취임 축하법회를 봉행했다.

관음종

실직자·노인 무료 급식

의정부 흥법사(주지 지섭)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실직자 및 불우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을 확대 실시한다.

종교화합나선 '스님같은 신부'

경기 광주 도착본당 방상복 주임 신부

"종교 목적은 하나"...성당서 삼배·명상·식발·오후불식...봉축 플래카드도 걸어

성당에서도 절을 한다. "간절한 마음으로 향을 사르고 삼배(三拜)를 하십시오" 경기도 광주군 수원교구 도착본당 방상복 주임신부(50·대전안드레아)는 성당을 찾은 신자들에게 이렇게 주문한다.

방상복신부는 지난해 6월 성당의 내부를 새로 꾸몄다. 긴의자를 없애고 온돌마루로 개조한 것이다. 그리고 성자·성부·성신을 받드는 의미에서 삼배를 권했다.

이다. 불교가 가장 한국적인 종교라고 말하는 방신부는 인근 사찰과의 교류는 물론 지난해 동국대 불교대학원에 입학해 불교공부에 열중하고 있다.

또한 삼배에 개량한복을 입고 오후불식 등 개인적인 수행을 하고 있는 방신부는 앞으로 불교의 실천을 통해 불교의 본래 역할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다는 그의 지론 때문



도착성당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성당입구에 봉축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사찰순례도 실시했다.

신 그를 '스님같은 신부'라고 말할 정도다. 특히 도착성당은 올해 처음으로 부처님오신날을 함께하는 의미에서 구인사 사찰순례 및 봉축플래카드를 내걸어 주위의 눈길을 끌었다.

방신부는 "종교란 궁극적인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며 "각 종교간의 화합을 위해서는 성직자들이 먼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광주=김종근 기자



동국대 1012명 수계 동국대(총장 송석구)는 불기 2542년 '전 동국인 총계 수계 대법회'를 28일 중강당에서 가졌다.

btn 하이텔서 문자방송

뉴스등 프로그램 서비스

'btn뉴스' 등 불교TV의 주요 프로그램들을 컴퓨터 통신으로도 볼 수 있게 됐다.

소프트의 빠른속도를 이용해 4월 20일 컴퓨터통신 하이텔 한국문자방송망에 불교방송망을 신설했다.

'종교언론인회' 창립

5대종교 언론인 참여...종교갈등해소 등 활동

한국종교신문언론인협의회의 창립 심포지엄이 24일부터 25일까지 경기도 일명 살롱유스호텔에서 열렸다.

통해 "종교간의 대화를 통해 종교가 사회에 환원하는 길로 나아가도록 종교언론이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발에 몸살 앓는 경주

사전조사 않고 공사...유물 80~90% 파괴

홍릉사지, 삼랑사지 등 경주지역의 문화재 파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대 정영교수와 동국대 안재호·김상목교수가 4월16일 발표한 '경주의 문화재 및 주민피해 실태 분석'에 따르면 84년부터 96년까지 경주에서 실시된 65건의 발굴조사 중 학술조사의 성격을 띤 것은 12건뿐.

특히 최근 경주시민 5백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0.2%가 현재 경주지역의 문화재보호와 관리실태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해 시민들이 경제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응답자도 63.5%에 달했다.

경주서 범자문 벽돌 발견

신라-인도 교류 입증자료

경주 소재 전탑지(塔址)에서 인도와의 교류를 시사하는 범자문(梵字文)벽돌이 처음 발견됐다.

경주 소제 전탑지(塔址)에서 인도와의 교류를 시사하는 범자문(梵字文)벽돌이 처음 발견됐다.

실물은 물론 문헌에도 기록돼 있지 않은 특이한 예이다.

황수영 전 문화재위원장은 "벽돌의 양식으로 볼 때 통일신라시대의 것으로 추정된다"며 "인도와 통일신라의 직접적인 문화교류를 입증하는 귀중한 발견"이라고 밝혔다.

3사 총성대 호국사 삼존불 탱화 봉안식

영천 제3사관학교(교장 이종간) 총성대 호국사(법사 이종인)는 4월 24일 삼존불 및 후불탱화 봉안식을 봉행했다.

호국사는 이날 5자반 크기의 석가모니 청동좌불과 좌우보처로 관음보살 및 지장보살 좌상을 점안했으며 가로 22자 세로 9자 크기의 후불탱화와 신중탱화등도 봉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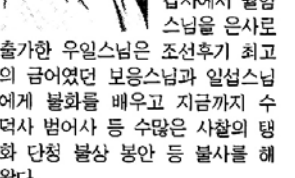
이번에 봉안된 불상과 탱화는 심우회 이지성보살(관련 인터뷰 4면)과 회원들이 시주한 것이다.

호국사는 1백80평 규모의 조립식 건물로 지어 법당으로 사용하도록 5월 12억2천여만원의 예산으로 착공, 현재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점안식만 앞당겨 봉행했다.

2층법당 1백80평 1층 부속실 70여평 등 연건평 2백50여평 규모의 호국사는 조계종 대구경북 5개교구 본사를 주축으로 96년 10월 결성된 호국사법당불사추진위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금어 우일스님 입적

금어 우일스님이 4월24일 입적했다. 세수 89세, 법랍 70세. 1929년 공주 감사에서 월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우일스님은 조선 후기 최고의 금어였던 보승스님과 일심스님에게 불화를 배우고 지금까지 수백사 법어사 등 수많은 사찰의 탱화 단청 불상 봉안 등 불사를 해 왔다.



Advertisement for 'Xiang Ni' (香妃) medicine, claiming to cure various ailments. Includes text about its benefit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Sungangsa' (수강생 모집) course, offering a 2-week program for 100,000 won. Includes details about the course and contact info.

Advertisement for 'Sasubak' (사주박사) software for Windows, version 5.0. Promotes its accuracy and features.